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3월 15일까지 본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를 선보인다. 사진은 전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청자 보살상과 나한상', '청자 사람모양 조각', '청자 세모양 주자' 등 모습.

# 1000년 전 생명 넘치는 비색 '상형청자' 광주를 찾다

동식물의 다양한 형상을 포착해 생명력 넘치게 표현한 '상형청자'. 상형청자는 그 형상과 특유의 아름다운 비색이 어우러져 한국미술의 높은 기술적 성취와 독자적 미감을 보여주는 최고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형청자의 대표적인 국보 '청자 사자모양 향로'와 '어룡모양 주자', 보물 '청자 죽순모양 주자' 등 100여점을 조망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은도자문화관 개관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의 두번째 순회전을 오는 3월 15일까지 본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이번 순회전에서는 상형청자의 제작과 향유·소재와 쓰임·종교적 맥락에 따른 사용에 이르기까지 청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총 4부로 풀어낸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한 다양한 상형청자 114건 131점을 접할 수 있다.

먼저 제1부 '상형청자란'에서는 흙으로 특정한 형상을 빚는 '상형'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고려 사람들에 의해 탄생한 상형청자를 살펴본다. 당시 사람들은 그릇에

다양한 형상을 유기적이고 정교하게 표현해 조형성과 실용성의 절묘한 조화를 이뤘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은 풍부한 감성이 깃든 상형청자를 일반 청자와 비교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어 제2부 '제작에서 향유까지'는 고려 왕실과 상류층이 향유했던 다양한 상형청자를 살펴보고, 상형청자의 제작과 유통·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조명한다. 1123년(인종) 고려에 온 북송 사신 서긍은 고려의 사자모양 향로를 보고 감탄한 내용을 생생히 기록했다. 당시 고려 상류층에 유행한 귀족 문화는 상형청자를 만드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가마터에서 출토되는 상형청자 조각들은 제작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장인의 무수한 실험과 도전 과정을 잘 보여준다. 강진 사당리 가마터, 부안 유천리 가마터 등 주요 가마터 출토 유물을 통해 당시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태안과 진도 바닷길에서 건져낸 상형청자는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뱃길로 운송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아울러 제3부 '생명력 넘치는 형상들'에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순회 전시

3월 15일까지 특별전시실서...청자 114건 131점 선보

국보 '청자 사자모양 향로' 주목...4부 구성 프로 다채



국보 '청자 사자모양 향로'



'청자 기린모양 향로'

서는 때로는 권위와 지위의 상징으로, 때로는 곁에 두고 싶은 자연을 대신하는 벗으로서의 상형청자에 주목한다. 다양한 표현이 담긴 상형청자에서는 고려 사람들의 높은 예술적 감각을 살핀다. 전시는 크게 상상의 동물을 대상으로 만든 상형청자와 주변의 자연을 대상으로 삼아 제작한 상형청자로 나눠 살펴본다. 상상의 동물인 용, 기린, 사자 등이 표현된 상형청자는 예로부터 상서롭고 신성하게 여긴 다양한 동물들을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상형청자로 표현한 오리·물고기·원숭이 등과 북송아·석류·연꽃·참외 등 주변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즐기고 감상했던 품안의 자연을 간접적으로 체험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4부 '신앙으로 확장된 세상'에서는 실용과 예술의 범주를 넘어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거나 신앙적 바람을 표현하는 영역으로 확장된 상형청자를 다룬다. 당시 도교와 불교 의례에 사용하기 위한 그릇이나 불상도 청자로 제작한 가운데, 서양도 신앙을 배경으로 만든 인물형상 청자나 나한상 모양의 청자들은 앞에서

본 상형청자와 또 다른 차원의 시각적 경험과 의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된 '온라인 전시설명서', '어린이용 디지털 전시 가이드' 등 연령별 온라인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깊이 감상할 수 있다.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CT로 본 상형청자', '만져보고 상상하는 고려 상형청자' 등 공간도 마련돼 상형청자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촉각을 통해 특별함을 가져갈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전시 개막을 기념해 전시기간 매달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인증샷 이벤트를 시작으로, 특별전 소문내기과 상형청자 퀴즈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최흥선 관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1000년 전, 고려 사람들이 향유하고 사랑했던 세상에서 고려청자의 비색과 형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개관한 도자문화관의 상설전과 더불어 도자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정체경 기자 view2018@

## 사랑의 헌정...심신 지친 이들에 전하는 위로

유송자 첫 스마일 시집 동양문학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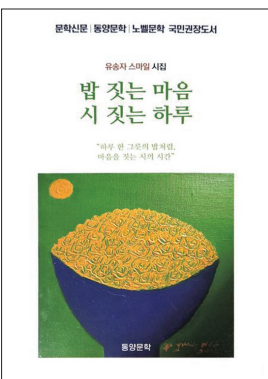
감사의 언어 투영...4부 구성 100편 수록

전직 간호사이자 이어 보형 전문가로 활동해온 유송자씨가 첫 스마일 시집 '밥 짓는 마음 시 짓는 하루'를 동양문학에서 최근 펴냈다.

'하루 한 그릇의 밥처럼, 마음을 짓는 시의 시간'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시집은 그동안의 고단과 열정으로 35여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함께 걸어오면서 '몸과 마음과 머니'를 조화롭게 성장시키는 코칭으로 삶의 균형을 전하는 데 주력해온 가운데 생명의 온유한 화해를 지향, 서정적인 향기를 품은 시심을 통해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소리를 담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기를 끊임없이 염원하는 의식이 곳곳에 투영돼

있다. 특히 시인의 시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되고 일상의 밥 냄새처럼 따뜻하며, 삶의 구석구석에서 피어난 감사의 언어들이 넘쳐난다. 그의 시는 결혼 33주년을 맞은 배우자에게 바치는 사랑의 헌정이자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로 전한다.

시인은 '우리 부부에게겐 은행이 있다/ 이름은 '사랑의 적금'/서운함을 빼고/ 감사를 더하며/매일 마음을 예금한다/그 계좌의 잔고가/삶의 평화다('부부는 행')라거나 '작은 불씨라도/지켜야 한다/그 불씨가/내일의 빛이 되니까'(마음의 불씨)라고 노래한다. 그의 시들은



계 접근할 수 있다.

이번 시집은 제4부로 구성. 프롤로그를 비롯해 제1부 '밥 짓는 마음', 제2부 '사랑, 그 이름으로', 제3부 '나눔의 향기', '마음의 반상' 등 주옥같은 시 100편이 실렸다.

유재기 문학평론가는 이번 시집에 대해 "평범한 세상의 마음에서 밥 짓는 환연을 보고 작은 희망의 하루를 마감하

는 듯한 평화를 느끼기에 아주 훌륭한 시집이다. 아울러 윤동주별문학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글재주를 타고난 것은 글을 읽는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김성대 시인은 "앞으로 남아 있는 인생의 여정에 디딤돌이 돼 꾸준한 노력으로 시인의 희망과 꿈이 피어나는 마음으로 좋은 날 및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언어의 마술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각각 밝혔다.

유송자 시인은 제29회 윤동주 별문학과 제20회 대평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한현 서포터즈, 웃음치료사, 토론티, 북파지기, KPC, 케네기클럽회원, 위대한 경영자 그리고 시인으로 나눔과 공헌의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동양문인협회 광주지 부국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신한라이프(구 ING생명) 이사와 현대해상, 한국투자 증권에 소속돼 상속 증여전문가, 법인 의사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잔잔한 어조로 푼 '지워지지 않는 아픔' 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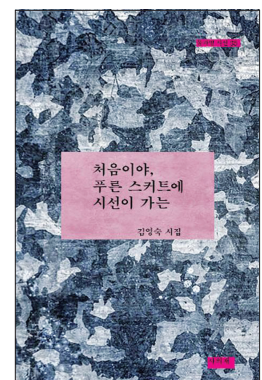
김영숙 첫 시집 '...푸른 스커트에 시선이 가는'

김영숙 시인이 첫 시집 '처음이야, 푸른 스커트에 시선이 가는'을 사외에서 최근 펴냈다. 물과별 시선36번째 권으로 나온 이번 시집은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잔잔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처음이야, 푸른 스커트에 시선이 가는'과 '그래서 뭐', '네 시에 파는 꽃', '온전한 천사'를 비롯해 1부에 실린 시편들은 분주한 일상 속 삶의 단상을 통찰과 지혜로 조망하고 있으며, 주어진 상처의 기억과 현재로 이어진 자발적 생존 방식이 투영된 2부에서는 '막다른 집은 대문이 잘 열리지 않았어', '허공에 걸려둔 서랍 하나', '납은 언어나고 했다' 등 수록 시편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직 남아 있는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있는 사상이 읽힌다.

이외에 3부에서는 '어떤 상처에는 단추를 달아야 해'와 '바지락 같은 목소리의 수경이는' 및 '고양이 혀로 위로하는 방식'을 망라해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 그 러나 수줍게 잠잠한 일상을 그리고 있다. 누구나 겪는 갱년기, 이미 늙어버린 여자 얼굴의 주름은 여전하나 '아픈 기억으로 뼈 하나를 심은 자리'처럼, '몸을 파내어 독을 이기는 순교자처럼', '손 대신 혀로' 등 공동의 아픔을 위로한다.

시인의 시편들은 소소한 생활용어와 시



대적 현상, 그리고 오월 단상, 거대한 서사, 일상 스토리 및 침잠하는 사유 등이 시편들 곳곳에 투영돼 있다. 어떤 시는 구호같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을 나타내기도 한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시적 감상이 가려지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관측과 감각으로 시어들을 기원한다.

시인은 2부에 실린 시 '막다른 집은 대문이 잘 열리지 않았다'에서 '새 파스텔처럼 반듯한 오후는 학교가 파한 후 철길을 따라갔다 나는/원피스에 딸기물이 들었 다며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종락.../오월 하순 새벽에 울리는 전화벨은 가위처럼 단호했다/막다른 집 문은 한 번 열리고/ 한 번 닫혔다//광주의 피비린내가 녹처럼 범벅된 오후였다'고 노래한다. 이 시에서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거나 '피비린내'에서 시적 자아가 겪은 기억들이 반추되고 있다.

이번 시집은 3부로 구성. 분주한 일상 틈틈이 창작한 작품 33편이 수록됐다.

김영숙 시인은 광주 출생으로 2023년 계간 '물과별' 봄호로 등단했으며 2025년 '강진시문학' 창간호에 '막다른 집은 대문이 잘 열리지 않았어' 등 6편을 발표했다. 현재 '목소리바다문학'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긍정 메시지 '길상 문양' 문화상품으로 재탄생

효문화전당재단, 신규 디자인 상품 7종 출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은 새해를 맞아 장수나 행복 등 좋은 일을 상징하는 무늬인 아시아의 '길상 문양'을 담은 문화상품 7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아시아를 잇는 소망'(Wishes Across Asia)으로 명명한 이번 시즌 상품은 아시아 각 지역에 전해 내려온 길상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상품 기획은 길상 문양 속에 담긴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긍정의 메시지를 일상 속 물건에 담아내는 데 초점을 뒀다.

상품군은 포스터와 엽서, 미니 연필 등 문구와 담요, 식기류, 공예 소품 등 일상 속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한 품목으로 구성했다.

한편, 이번 문화상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상품점 들라과 온라인 상품점 들라 누리집(https://acodclashop.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체경 기자